

### 금호터미널 매각 작업 본격화 광주 유통업계 지각변동 예고

대한통운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주)의 새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일보 1월31일자 1면>  
특히 올해 호남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시설 확충을 모색하는 등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는 광주신세계는 금호터미널과 임차계약을 맺고 있어 대한통운 매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다. 금호터미널과의 임차계약이 2015년 만료될 예정이어서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계약조건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경제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대한통운 매각에 롯데, CJ그룹,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 중 누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지역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삼성家 인수뎀 광천동 '삼성 유통 타운' 형성

## 라이벌 롯데 인수뎀 광주신세계 입장 난처

만약 신세계와 유통 라이벌인 롯데가 인수할 경우 핵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롯데 신석호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에 이틀 기업 중 누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지역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현안인 택배업 진출을 달성할 수 있고, 그룹 계열사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롯데로지스틱스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롯데가 대한통운 인수로 금호터미널(주)까지 얻게 될 경우 광주지역 최대 상권의 상무지구로 가는 길목에 다고 있는 대한통운 인수를 통해 그룹

게 되는 셈이다.  
유통강자인 롯데가 유독 광주지역에서만 광주신세계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점을 감안해 롯데가 영업권 확장에 나설 경우 광주신세계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신세계가 생활문화공간을 지

향하며 유-스퀘어와 협력을 통해 문화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가 금호터미널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경우 연계 마케팅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불편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삼성그룹이나 범 삼성가의 일원인 CJ그룹이 금호터미널을 인수하면 광주신세계는 영업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평가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매각 대상인 금호터미널은 포스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는 자금력이 풍부한데다 물류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돼 금호터미널 등 유통관련업을 위탁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지옥에 갔다 온 기분입니다”

## 장성 구제역 의심신고 음성판정 안도

“지옥에 갔다 온 듯한 기분입니다” 전남도와 일선 자치단체 방역담당 직원들이 조마조마했던 가슴을 쓸어내렸다. 장성군 한우 사육농가에서 지난달 30일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음성으로 판명되면서다.  
의심신고가 접수된 당시만 해도 방역요원들은 “을 게 왔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차단방역을)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뿔났다니...”며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때만 해도 방역요원들은 하루종일 비상 대기하며 눈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장성을 중심으로 인근 사·군에 경

계를 내리고 소독 등 방역작업을 더욱 강화하는 등 초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이곳 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접종 뒤 암소 2마리의 젖꼭지가 부어오르고 송아지 10마리 중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언뜻 외견상으로는 구제역 증상과 비슷해 불안감을 줬다.  
그만큼 음성 판정 이후 방역요원들 사이에서는 안도감이 배어 나왔다.  
다만, 육안 조사에서 드러나야 할 점 흠집이나 체온 상승 등 전형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현장 방역요원들의 의견이 흘러나오는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 농장에서 폐사한 송아지도 백신접종 전부터 설사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돼 일반적인 병증으로 인한 폐사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3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자 전남도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또 다시 초긴장 모드로 돌입, 차단 방역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도 팽배해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AI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과 축산농가들이 쓰러질 지경인데 구제역 의심신고마저 터지는 바람에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농가와 방역 초소의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통운 매각 작업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주)과 임차계약을 맺은 광주신세계의 입지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신세계 백화점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농민단체와 청년수의사회, 진보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31일 서구 쌍촌동 농민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확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가적 방역체계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적한 어촌마을에 나타난 큰 변화.  
대규모 산업과 수많은 기업,  
새로운 학교와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현대삼호중공업이 있습니다.  
더 큰 미래와 아이들의 꿈이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 김총리 “구제역 사태 국정시스템 보완 계기 삼아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구제역 확산과 관련, “구제역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구제역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관심을 갖고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드러난 방역에서의 문제점 등 방역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구제역 문제로 국정운영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일정 부분 이를 수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른 현안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지식식 상설과 관련해 “도정 공백 우려가 있는만큼 여러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안전부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도민의 염원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작업에 문제가 생겨서는 결코 안된다”며 “정부는 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유치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해남군의원들 임시회 단축 방역활동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 속에 해남군의회 의원들이 임시회를 단축하고 방역 활동에 나서

는길을 곁었다.  
해남군의회에 따르면 구제역과 AI 방역 등에 힘쓰는 공무원들을 위로하고 축산농가를 돕고자 예초 9일간 열기로 한 임시회를 이를 단축하고 지난달 28일 방역 초소에서 근무했다.  
전체 의원 11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23명이 5개조로 나눠 산이면 구성리 방역초소 등 5개 초소에서 방역담당 직원들과 함께 방역활동을 했다.  
군의회는 방역초소 근무자에게 컵라면과 음료 등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구제역·AI 폐사 가축 생화학적 처리 연구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폐사하거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지 않고 생분해함으로써 분해해 처리하는 방안이 연구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31일 2011년 역점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구제역과 AI 발병에 따른 가축 매몰지의 환경관리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약품을 이용한 사체의 분해 실험을 연구하고 폐사 가축 처리부산물의 자원재활용 방안을 검토해 가축의 비(非) 매몰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